

사회적 자본과 노인 삶의 만족도 연구

이창화

경북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

A Study on Social Capital and Satisfaction of Elderly life

Changhwa Lee

Professor, Department of Welfare & Public Administration, Kyungbuk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서로 다른 사회적 자원과 규범, 가치, 신뢰 등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노인은 N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가구(401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비교에 있어서 성별, 결혼여부, 학력, 가구구성형태, 수입정도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는 있는 것으로 보여졌으며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신뢰, 규범, 참여 순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노인복지정책의 내용 및 방향에 있어서 사회적 자본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사회활동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사회적 자본, 삶의 만족도, 신뢰, 규범, 사회적 참여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ifferences in norms, values, and trusts that affect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as well as the elderly population. The elderly surveyed 401 households (65 years old or older) residing in N c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was a difference in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sex, marital status, educational background, type of household composition and income level in the comparison of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on the elderly's life satisfaction, it was found that they contributed to trust, norm, and participation order. This study suggests that future policies of the elderly welfare policy should be considered as a policy that focuses on participation in various social activities that can activate social capital.

Key Words : Social capital, life satisfaction, trust, norm, social participation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18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738만1천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4.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60년에는 41.0%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55세에서 79세 고령자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도 64.1%로 전년(62.6%) 대비 1.5%p 증가하였다. 또한 노년 부양비가 2018년 19.6명에서 2060년 82.6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1] 최근 발표되는 다양한 지표들은 우리사회의 고령

화 진행속도뿐만 아니라 노인인구가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인구 비율로 2016년 기준 43.7%로 전년 43.4%보다 0.3%포인트 증가하였다 [1]. 또한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이 2012년 기준 절대빈곤 인구 기준 30%, 상대적 빈곤 인구 기준 17.5%인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인구의 공공부조 수혜율은 7.0%로 수혜 대상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빈곤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2].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고

*Corresponding Author : Changhwa Lee(changlee305@naver.com)

Received October 12, 2018

Accepted December 20, 2018

Revised November 16, 2018

Published December 31, 2018

령자에 대한 부양비용과 복지수요를 증가시킨다.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살률 역시 국제적으로 최상위 수준이다[3]. 국민일보[4]에 따르면 기대수명은 늘어났지만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짧아져 노년의 17.5년을 아픈 상태로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고령화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한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우리의 삶의 질이 행복해야 하며 개인과 사회전체 모두가 웰빙이어야 한다는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

삶의 질에 대한 초기연구에서 인구통계학적, 사회경제적 변수들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졌다면 오늘날은 다양한 측면에서서 안녕감, 행복감으로 정의 되고 학자에 따라 삶의 질은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사회적 관계와 환경에 의해 만들어 지고 유지되는 광범위한 개념이면서 주관적인 측면이 중요시 되어졌다[5]. 이러한 주관적 행복, 삶의 질에 대한 연구 중 Easterlin[6]은 경제적 요인 혹은 경제적 성장이 행복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주요하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 간 비교에서 소득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빈곤, 고령화, 높은 자살률 등의 사회문제들은 지금까지의 경제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후 국가 간 주관적 행복을 조사하는 연구에서 OECD[7]는 웰빙을 측정하는 11개 하위영역 중 하나로 주관적 웰빙을 별도의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SDSN(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8]의 행복보고서에서는 155개국을 대상으로 고용(employment), 소득불평등(income inequality), 기대여명(life expectancy), 1인당 GDP, 정부 및 기업의 투명성,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를 바탕으로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용인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7년 국가별 행복지수에서 우리나라는 56위로 사회적 지지,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의 자유, 관대함, 부패에 대한 인식부면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제적, 물질적 측면에 기초한 정책들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삶의 만족 및 행복감, 웰빙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에 기반한 정책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요한 요소라고 하고 있다[9]. 박희봉·이희창[10]은 개인의 경제적 요인, 사회적 배경, 사회적 자본의 요인 중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요소가 사회적 자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히

고 있으며 특히 네트워크와 신뢰가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N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 변수별 영향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위해 사회적 자본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하위변수인 네트워크, 신뢰, 사회적 참여로 구분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1.2 연구문제

연구문제1.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노인 삶의 만족도는 사회적 자본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은 다양한 정의가 제시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초기 Putnam의 연구에서의 규범, 신뢰, 네트워크, 참여의 구성체로 이해되어지며 구성원들 간의 상호협력력을 통해 사회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고 보았다.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자들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의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Definition of Social Capital

Authors	Definitions of Social Capital
Bourdieu(1986)	the aggregate of the actual or potential resources which are linked to possession of a durable network of more or less institutionalized relationships of mutual acquaintance or recognition
Putnam(1993, 2000)	features of social organization such as networks, norms, and social trust that facilitat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for mutual benefit
Fukuyama(1999)	Social capital can be defined simply as the existence of a certain set of informal values or norms shared among members of a group that permit cooperation among them

사회적 자본은 사회활동을 통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산 또는 자원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재화와 같은 실질

적 자산 자체를 칭하기 보다는 사회적 교류를 통해 형성된 관계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인 그리고 잠재적인 도움, 재화, 혜택의 합을 말한다[11].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사회적 참여 등으로 보고 있으며 오늘 날의 사회에서 혈연집단을 초월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 간, 혹은 집단 간 관계 속에서 공식·비공식 활동 속에서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을 결집시켜나가고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구성원들 간의 인간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어지면서 행복도가 높아지게 된다[11,12].

2.2 사회적 통합

21세기 세계화 및 경제위기는 우리 사회에 위기를 가져왔으며 특히 IMF 경제위기는 대량실업의 위기와 함께 사회안전망의 구축, 복지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하게 된다. 이에 사회적 통합이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이 심화되어지는 사회현상에 대해 생산성보다는 사회적 연대 혹은 공동체의 발전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과잉생산과 불평등한 분배사이에서 사회와 사회구성원들의 결속이 의미하는 바가 크며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사회적 배경을 가진 각각의 개인들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갈 때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 사회적 통합이며 이는 사회전체를 보다 더 긴밀하게 결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사회적 통합은 사회적 자본에 비해 개념적으로 더 광의적으로 사회적 관계 및 사회적, 정치적 신뢰, 시민정신 및 참여 등의 개념을 포괄한다[13].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N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가구 573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류가 있는 설문지를 제외한 401가구를 최종 선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8.0 통계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3.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 사회통합과 삶의 만족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3.2.1 사회적 자본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사회적 자본은 사회구성원 사이의 조화와 협력을 가능케 해주는 네트워크, 규범, 참여 그리고 신뢰로 정의하고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구성은[14-17] 다음으로 구성되어졌다.

참여 변수로는 ①사교모임(친목회, 동창회, 향우회 등)에 자주 나감, ②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집회나 토론회에 등에 참여한 적이 있음, ③지역사회단체(학부모회 및 교육회, 청년회, 자원봉사단체)에 참여하는 편임, ④정치, 경제, 사회문제 등에 대하여 의견개진, 활동 등을 한 적이 있음, ⑤선거(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에 참여하는 편임 등 5개의 설문문항들로 구성하였다. 네트워크 변수는 ①개인적인 문제를 의논할 가까운 친구가 많음, ②금전적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나 이웃이 많음, ③내가 속한 단체의 회원과 자주 만남, ④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웃이 존재함, ⑤어려움 직면 시 협력자가 있음 등 5개의 설문문항들로 구성하였다. 신뢰 변수는 ①이웃을 신뢰함, ②친척을 신뢰함, ③친구를 신뢰함, ④사회단체를 신뢰함, ⑤지방정부를 신뢰함 등 5개의 설문문항들로 구성하였다. 규범 변수는 ①사회적 규범을 준수함, ②지방정부의 조례가 잘 구비되었다고 생각함, ③사회도덕을 준수하는 편임, ④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함, ⑤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는 편임 등 5개의 설문문항들로 구성하였다.

3.2.2 사회통합

사회통합은 사회에 통합되었다고 느끼는 인식과 소속감의 정도로 정의하고 척도구성[18,19]은 ①나는 사회에 도움을 주는 존재임, ②나는 사회에서 의미있는 활동을 하고 있음, ③우리 사회에서 나는 존중받고 있다고 느낌, ④나는 사회의 중요한 사람임, ⑤나는 사회에 필요한 사람임 등 총 5개 설문문항들로 구성하였다.

4. 연구결과

4.1 표본의 특성

Table 2에서 성별분포는 남자 169명, 여자 229명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여부 항목에서는 미혼이 20명, 배우자

있는 사람이 113명, 사별 177명, 이혼 68명, 별거 8명이며 학력은 주로 초졸로 54.7%를 차지하며 가구형태는 1인가구가 192명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입은 매우가난 하다와 가난하다로 응답한 사람의 합이 359명으로 전체 중 91.1%를 차지하고 있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variable	classification	n	%
gender	male	169	42.5
	female	229	57.5
marital status	single	20	5.2
	married	113	29.2
	widow	177	45.7
	divorce	68	17.6
	separation	9	2.3
education	elementary	214	54.7
	middle school	75	19.2
	high school	62	15.9
	university	31	7.9
	graduate school	9	2.3
household	live alone	192	49.4
	Aged Couple	86	22.1
	grandfa & grandson	21	5.4
	elderly and children	76	19.5
	unrelated	14	3.6
income	very poor	231	58.6
	poor	128	32.5
	moderate	33	8.4
	wealthy	2	.5

4.2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타당도 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Explanatory Factor Analysis)방식을 선택하였고, 요인추출 회전방식은 베리 맥스(Varimax)회전법을 이용하였다.

Table 3의 요인분석 결과표를 살펴보면, 각 변수들의 측정항목들은 단일차원적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의 요인적재값도 모두 .06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KMO값은 0.848,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000으로 유의미하였다. 한편 각 변수의 측정항목들의 신뢰도 분석은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였으며, 아래와 같다.

Table 3. Factor analysis about social capital and cohesion

variables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	% of variance	Cronbach's α
trust	trust3	0.711	4.081	17.743	.798
	trust1	0.710			
	trust2	0.609			
	trust4				
	trust5				

norm	norm3	0.895	3.363	14.620	.855
	norm5	0.846			
	norm4	0.827			
	norm1	0.825			
	norm2	0.462			
Integrated	intg.3	0.889	2.311	10.047	.889
	intg.4	0.839			
	intg.1	0.809			
	intg.2	0.803			
	intg.5				
civic engagement	c. e.2	0.735	1.640	7.129	.620
	c. e.4	0.699			
	c. e.3	0.666			
	c. e.1	0.611			
	c. e.5				
network	network1				del
	network2				
	network3				
	network4				
	network5				

KMO(Kaiser-Meyer-Olkin) : 0.848, Bartlett : .000

4.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의미 차이

Table 4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수인 신뢰의 경우 학력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범의 경우는 성별, 결혼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Analysis of the difference of social capital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	classification	trust	
		m(sd)	pro.
gender	male	9.01(4.07)	.860
	female	90.8(3.90)	
marital status	single	8.35(3.60)	.058
	married	9.34(3.94)	
	widow	9.37(3.97)	
	divorce	8.79(4.06)	
	separation	5.67(2.83)	
edu.	elementary	8.92(3.97)	.020
	middle school	8.47(4.00)	
	high school	9.71(3.36)	
	university	10.90(3.95)	
	graduate school	7.67(4.58)	
income	very poor	2.66(1.401)	.179
	poor	2.88(1.331)	
	moderate	3.42(1.347)	
	wealthy	5.00(.000)	
variabl.	classification	norm	
		m(sd)	pro.
gender	male	21.97(3.70)	.020
	female	20.76(4.61)	
marital status	single	19.80(5.35)	.027

	married	22.21(3.66)	
	widow	21.11(4.24)	
	divorce	20.47(5.00)	
	separation	20.11(4.32)	
edu.	elementary	20.93(4.43)	.344
	middle school	21.40(4.73)	
	high school	21.66(3.51)	
	university	22.51(3.41)	
	graduate school	21.33(4.64)	
income	very poor	21.15(4.19)	.213
	poor	21.12(4.50)	
	moderate	22.48(4.07)	
	wealthy	25.00(.000)	

*p<.05

4.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분석

Table 5에서 삶의 만족도는 성별, 결혼여부, 학력, 가구, 수입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보다는 남자가, 이혼의 경우보다는 유배우자의 경우, 독거노인보다는 노인부부 가구가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Analysis of the difference of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	classification	satisfaction	
		m(sd)	pro.
gender	male	2.98(1.454)	.044*
	female	2.70(1.344)	
marital status	single	2.95(1.468)	.003*
	married	3.15(1.435)	
	widow	2.81(1.345)	
	divorce	2.44(1.354)	
	separation	1.75(1.165)	
edu.	elementary	2.76(1.391)	.034*
	middle school	2.74(1.355)	
	high school	2.74(1.448)	
	university	3.50(1.253)	
	graduate school	3.56(1.424)	
household	live alone	2.62(1.390)	.000*
	Aged Couple	3.43(1.408)	
	grandfa & grandson	2.52(1.167)	
	elderly & children	2.63(1.292)	
income	unrelated	3.07(1.385)	.002*
	very poor	2.66(1.401)	
	poor	2.88(1.331)	
	moderate	3.42(1.347)	
	wealthy	5.00(.000)	

*p<.05

4.5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 관련 상관관계 분석

Table 6에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대부분의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만족도와 신뢰가 .365 수준으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통합과 삶의 만족도가 .360 수준으로 나타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6. Analysis of the difference of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quality of life	civic engagement	trust	norm	integrated
quality of life	1				
civic engagement	.172**	1			
trust	.365**	.325**	1		
norm	.205**	.161**	.308**	1	
integrated	.360**	.202**	.301**	.339**	1

**p<.01

4.6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Table 7에서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삶의 만족에 대한 변량의 약 14.4%를 설명(R²=.144)하는 것으로 나타나(F=22.048, p<.05) 전체 예측방정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각 변수들의 직접적인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살펴보면, 삶의 만족에 대한 신뢰는 31.65%(β=.316), 규범은 9.8%(β=.098), 참여는 5.3%(β=.053) 크기의 상대적 순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7. regression about quality of life with elderly

variables		quality of life	
		β	t/f
social capital	civic engagement	.053	1.067
	trust	.316	6.154*
	norm	.098	1.993*
F		22.048*	
R ²		.144	
modified R ²		.138	

*: p<.05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N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의 차이 결과

신뢰, 규범, 사회적 참여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회적 자본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인사회활동참여와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실천적 방향성이 노인들의 신뢰수준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참여와 참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통하여 긍정적 삶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전략이 요청되어진다.

REFERENCES

- [1] Statistical Office.(2018). <http://kostat.go.kr>
- [2] J. Y. Jang. (2013). Working poverty and Income support for low-income brackets. *Korean social Trends 2013*, 135-140.
- [3] J. H. Kim. (2015). Aging and Change in the Life of the Elderly. *Korean social Trends 2015*, 43-51.
- [4] W. J Tae. (12-05-2017). *Han life expectancy 82.4 years, health life 64.9 years ... 17.5 years live as 'patient'*. <http://news.knib.co.kr/article/view.asp?arcid=0011955837>
- [5] B. J. Yoon. (2018). A Study on the Happy Life Expectancy by Life Table Method. *J Health Info Stat 2018, 43(1)*, 89-95.
- [6] R. A. Easterlin. (2005). Feeding the Illusion of Growth and Happiness: A Reply to Hagerty and Veenhoven. *Social Indicators Research, 74(3)*, 429-443.
- [7] OECD. (2017). *Multilingual Summaries How's Life? 2017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DOI : 10.1787/2308967
- [8] SDSN. (2017). *World Happiness Report 2017*. <http://unsdsn.org/resources/publications/world-happiness-report-2017/>
- [9] S. J. Sim, H. G. Lee & J. Y. Seok. (2015). Subjective Wellness Measurement Results: Analysis of subjective well-being distribution and determinants. *Statistical Research* 19-72.
- [10] H. B. Park & H. C. Lee. (2005). Comparative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in Life: Economic and Social Factors?. *Journal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17(3)*, 709-728.
- [11] H. B. Park. & H. C. Lee. (2004). Social Capital and Gender Equality : The Effect of Gender Characteristics and Gender Equality on Social Capital. *Korea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91-116.
- [12] Y. R. Hong. (2002). The Meanings and Functions of Social Capital in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Policy for Social Cohesion. *The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4(1)*, 23-47.
- [13] J. K. So. (2004). Toward Develop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16(1)*.
- [14] Y. C. Choi. (2004). Constructing the Social Capital Indicators at Local Level.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119-144.
- [15] D. Narayan. & M. F. Cassidy. (2001). A Dimensional Approach to Measuring Social Capital Inventory. *Current Sociology, 49(2)*, 59-102.
- [16] S. M. Kim. (2011). *The influence of the social capital on the suicide ideation in the elderly*.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17] Y. S. Jang, H. J. Jang & M. S. Cho. (2009). Social Capital and Social Conflicts in Korea: The Multiple Facets of Social Capital. *Survey Research, 10(2)*, 45-69.
- [18] J. S. Choi, Y. S. Kang & J. W. Kim. (2009). The effect of the social exclusion Level against. *Yonsei social welfare review*, 309-341.
- [19] Y. S. Jang, M. S. Cho, H. J. Chung & M. E. Jeong. (2012). *A New Approach to Social Integration: Causes*

이 창 화(Lee, Chang Hwa)

[정회원]



- 1995년 2월 : 계명대학교 사회학과(문학석사)
- 2002년 2월 : 계명대학교 사회학과(문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경북대학교 복지행정과 교수
- 관심분야 : 빈곤, 사회적 자본, 사회복지정책
- E-Mail : changlee305@naver.com